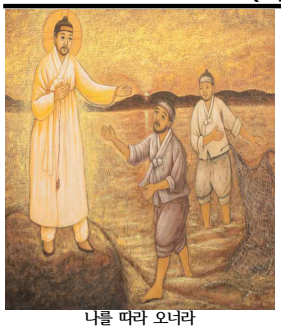
2023. 02. 12. (녹)연중 제6주 No. 1352


나를 따라 오너라

나누는 공동체, 더불어 사는 공동체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천주교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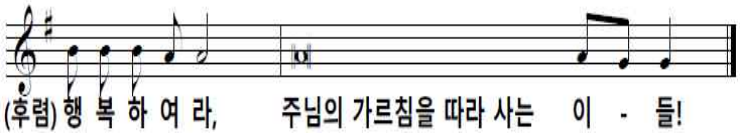
ST. FRANCIS OF ASSISI CHURCH KOREAN COMMUNITY

Address: 135 West 31st Street, New York, NY 10001
Phone : 212.736.8500 (EXT 355, 384)
347-834-5784
Website : www.stfranciskc.org
청년 website : facebook.com/groups/yagfyny

주임신부 : Fr. Thomas Gallagher, O.F.M.
지도신부 : 김 진열 가롤로 (작은형제회 (프란치스코회))
지도수녀 : 김 효주 (툿찡 포교베네딕도회 서울수녀원) seoulosb@gmail.com
사목회장 : 백 이백 아오스딩 646. 599. 5795
한국학교 : stfrancisks@gmail.com

제1독서 | 집회 15,15-20

화답송



○ 올곧은 이들에게는 어둠 속에서 빛이 솟으리라. 그 빛은 너그럽고 자비로우며 의롭다네. 잘되리라, 후하게 꾸어 주고, 자기 일을 바르게 처리하는 이! ◎

○그는 언제나 흔들리지 않으리니, 영원히 의인으로 기억되리라. 나쁜 소식에도 그는 겁내지 않고, 그 마음 굳게 주님을 신뢰하네.◎

신앙고백 : 니케아 콘스탄티노폴리스 신경

† 한 분이신 하느님을 ◎ 저는 믿나이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늘과 땅과 유형 무형한 만물의 창조주를 믿나이다.
또한 한 분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하느님의 외아들, 영원으로부터 성부에게서 나신 분을 믿나이다.
하느님에게서 나신 하느님, 빛에서 나신 빛,
참 하느님에게서 나신 참 하느님으로서,
창조되지 않고 나시어 성부와 한 본체로서,
만물을 창조하셨음을 믿나이다.
성자께서는 저희 인간을 위하여, 저희 구원을 위하여,
하늘에서 내려오셨음을 믿나이다.
또한 성령으로 인하여 동정 마리아에게서 육신을 취하시어 사람이 되셨음을 믿나이다.〈밑줄 부분에서 모두 머리를 깊이숙임〉
본시오 빌라도 통치 아래서 저희를 위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수난하고 묻히셨으며 성서 말씀대로 사흗날에 부활하시어 하늘에 올라 성부 오른편에 앉아계심을 믿나이다.
그분께서는 산 이와 죽은 이를 심판하러 영광 속에 다시 오시리니 그분의 나라는 끝이 없으리이다. 또한 주님이시며 생명을 주시는 성령을 믿나이다. 성령께서는 성부와 성자에게서 발하시고 성부와 성자와 더불어 영광과 흠숭을 받으시며 예언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셨나이다. 하나이고 거룩하고 보편되며 사도로부터 이어오는 교회를 믿나이다. 죄를 씻

제2독서 | 1코린 2,6-10

복음환호송 ◎ 알렐루야.

○ 하늘과 땅의 주님이신 아버지, 찬미받으소서. 아버지는 하늘나라의 신비를 철부지들에게 드러내 보이셨나이다.

복음 | 마태 5,17-37

성가

입당성가	468	그리스도는 나의바위
예물준비	213	제단에 예물을
성체성가	180	주님의 작은그릇
파견성가	82	주찬미

미 사 봉 헌

연미사	봉헌
본당에서 믿음속에 살다가 선종하신	
〃 김순환 루시아	요셉회
〃 홍봉운 바오로	요셉회
〃 김용기 요셉	요셉회
〃 김귀순 안나	요셉회
〃 민병택 베드로	요셉회
〃 박현진 스테파노	요셉회
〃 한시찬 라파엘	요셉회
〃 이정진 안토니오	요셉회
이정진 안토니오	한동훈
이정진 안토니오	이병국
김종욱 베네딕도	박지은 카타리나
조상님영혼, 낙태된아이들	권모니카
서순자 루시아	익명
이용희 데레사영혼, 프란치스칸 형제회 모든 영혼	익명
신카타리나 배골룸바 김모세	김동주 젬마

주일	해설	1독서	2독서	보편지향기도	성찬봉사	복사1	복사2
2월 12일	김유화	정은철	김미혜	김미혜	김종선	없음	
2월 19일	이영노	김진섭	배수아	배수아	유정옥	없음	

미사, 성사, 교리 안내	
주일 미사	오전 09:15 윗 성당
청년 미사	매월 2번째 토 18:00 아래 성당
고해 성사	08:30-08:50 아래 성당 고해소
혼인 성사	신부님께 직접 문의
유아 세례	매월 2번째 주일 미사중 *신청:사무실
봉 성 체	매월 1번째 목요일 *신청:사무실
예비신자교리	매주 주일 11:00

▶주일 미사 직후 친교실

다미아노 홀/ 성당 밖 좌측 20m

오랜만에 성당에 나오신분, 새로 전입오신분, 처음 뵙는 분들께 먼저 다가가 따뜻한 인사를 나눕시다!

"형제애를 계속 실천하십시오. 손님 접대를 하다가 어떤 이들은 모르는 사이에 천사들을 접대하기도 하였습니다" 히브13,2

▶연령회 모임

미사후 아래성당

▶맨하탄 주임 신부님 미사집전

김 가롤로 신부님께서 비자갱신으로 한국에 머무시는 중입니다.

오늘 미사(2/12): Fr.Thomas M. Gallagher, ofm

▶제 13차 성령안에 성장세미나

일시: 2/17(금)3pm~2/19(주일)5pm, 2박3일

장소: 뉴튼 분도수도원, 참가비: $340

대상: 성령안에삶 세미나 받은후, 영적성장과 봉사헌신의 열매 맺기를 갈망하는 분. 신청:347-665-6696 마감: 오늘

▶성지(聖枝)가지 회수

2022년 주님 수난 성지주일에 가져가 각 가정의 벽 십자고상 뒤에 1년 동안 둔 성지 가지를 회수합니다. 2월 19일(일)까지 사무실 앞 수거함에 넣어주세요.

이 가지는 태운 뒤 축복하여 재의 수요일(2/22) 교우분들의 머리에 얹는 예식에 사용됩니다.

▶사순시기 공동 십자가의 길 기도: 매주 금, 7pm, 윗성당

날 짜	주관 단체	인원
2/24(금)	꾸리아	각 단체마다 4명 필요 : 십자가 1 주송1 초2
3/ 3(금)	울뜨레아	
3/10(금)	요셉회, 성모회	
3/17(금)	청년회	
3/24(금)	양업회, 성령기도회	
3/31(금)	연령회	
4/ 7(금)	전례 말씀봉사자회	

십자가의 길은 초대교회 때 예루살렘 성지 순례자들이 빌라도 관저에서 골고타산까지 걸으며 기도하던 데서 유래합니다. 거룩한 사순시기에 주님의 사랑과 희생을 묵상하는 십자가의 길에 교우분들을 초대합니다.

▶주일학교 교사모집

어린이와 함께 예수님의 사랑을 배우고 성장할 주일학교 교사를 모집합니다. 문의: 사무실

▶미사전 일찍 도착

미사에 09시까지 성당에 도착합시다. 옆 사람과 대화 자제하시고 함께 성경 봉독하며, 주님 뵙기 위한 마음의 준비를 합니다.

▶성경을 읽기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성령의 빛으로 저희 눈을 여시어
주님의 길을 보게 하시고, 저희 귀를 여시어
생명의 말씀을 듣게 하소서. 아멘

▶성경을 읽은후 드리는 기도

하느님 아버지, 저희가 성경을 생명의 말씀으로 믿고
기도하며 살고 선포하게 하시어 언제나 성령 안에서
평화와 기쁨을 누리게 하소서. 아멘

한인공동체 온라인 서비스 안내

1. 미국 본당 홈페이지를 통해 제공합니다. 구글에서 "맨하탄 성 프란치스코 한인성당"을 검색하세요.

stfrancisnyc.org › korean-ministry ▾ Translate this page

Korean Ministry - Saint Francis of Assisi

클릭하면 한인공동체로 바로 연결됩니다.

공지사항 기부 주보

웃으면서 다가가기

투병 중이신 분들 위해 기도합니다.

"가장 작은 이들 가운데 한 사람에게 해 준 것이 바로 나에게 해 준 것이다." Mt 25,4

김옥지아가다 이경희미카엘라 김동희헬레나 정창동폴리나 지군자스테파니 진정은마리아 이진자세실리아 이병국요한 이경봉요셉그레고리오

미사봉헌

생미사	봉헌
고은경 모니카	송명근대건안드레아
고은경 모니카, 노희정데레사 생일축하	김보현 엘리사벳
이원경 모니카 가정	이원경 모니카
정영시 스테파노, 박영순 아가다 가정	정다경 마리아
이영애 레지나, 이지훈 아네스	가족
함승연 마르타	마르타
임영애 스텔라	울뜨레야
신호균 안토니오	강혜순소피아가족
진운자 스콜라스티카	익명
김지현 스콜라스티카	부모
박민선 베로니카	박카타리나
공미진 마르시아	박카타리나
문홍빈 안셀모	가족
김현진 김인순세실리아 영육건강	이수산나
김동광 건강회복, 김종선 비비안나 부부	연령회
임영애 스텔라	연령회
김진오 김진영 영육건강	익명
새평의회에 주님은총과 평화 깃들길	이요셉
김용식안토니오 김은혜게라피나 김인중죠셉	익명
이춘석가브리엘건강 박민제데레사 박지은안나	익명
이춘석가브리엘 건강	조은경 막달레나
이춘석가브리엘 영육건강	익명
베푸신 하느님은총 감사	김은숙 오틸리아
김진수 대건안드레아 원하는일 이루길	김은숙 오틸리아
프란치스칸 형제회 아픈이위해	익명
Thank you for Elction	S.F.O.
전평의회 감사미사, 새로뽑힌 평의회멤버	익명

적어도 미사 15분 전에!

안봉환 스테파노 신부

“탑승객은 출발 15분 전에 대기하여 주십시오.(버스, 기차, 비행기 등)” 이는 여행객들에게 매우 익숙한 표현이다. 모든 일에는 시작이 있고 마침이 있다. 하느님께서는 만물의 마음속에 시간 의식을 심어 주셨다.

“하늘 아래 모든 것에는 시기가 있고 모든 일에는 때가 있다. 태어날 때가 있고 죽을 때가 있으며 심을 때가 있고 심긴 것을 뽑을 때가 있다. 죽일 때가 있고 고칠 때가 있으며 부술 때가 있고 지을 때가 있다. 울 때가 있고 웃을 때가 있으며 슬퍼할 때가 있고 기뻐 뛸 때가 있다. (…). 그분께서는 모든 것을 제때에 아름답도록 만드셨다. 또한 그들 마음속에 시간 의식도 심어 주셨다”(코헬 3,1-11ㄴ).

일 년과 한 달 그리고 하루, 시기와 계절에 따라 다양한 일상생활이 전개된다. 극장에서 합창단 공연이나 영화 상영, 또는 국경일의 공적 행사나 외국 출장이나 여행이 있다면 사람들은 누가 뭐라고 하지 않아도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도착해서 기쁜 마음으로 기다린다. 공적 행사나 업무가 이미 시작되었거나 교통수단이 떠난 뒤에 도착한다면 뒤늦게 가슴을 두드리며 후회한들 무슨 소용이 있겠는가. 공적 행사나 업무가 있다면 지체하지 말고 정해진 시간보다 일찍 지정된 장소에 도착해야 한다는 것은 자명한 사실이다.

그리스도교 공적 예배인 미사는 ‘사제이신 그리스도와 그분의 신비체인 교회의 거룩한 행위’이다. “전례 행위는 사적 행위가 아니라 ‘일치의 성사’인 교회, 곧 주교 아래 질서 있게 모인 거룩한 백성인 교회의 예식 거행”(「전례 헌장」 26항)이다. 그러므로 신자들은 각자의 역할에 따라 능동적이고 자발적으로 완전하게 참여해야 한다.

여행이나 특별한 행사에 미리 참여하는 것처럼 신자들이 적어도 미사 15분 전에 와서, 앞자리부터 앉아 하느님께 감사와 찬미드리며 미사를 준비한다면 얼마나 좋을까!